

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도 獨裁時代에서 다시 民主時代로 가야 된다고 하는 이런 생각들 때문에 일어났던 운동이 바로 光州抗爭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는 光州抗爭을 두 가지 이름으로 부르고 싶어요. 처음에는 光州虐殺에 의한 抗爭이다. 이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過剩鎮壓 이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마는 저는 절대 그 말을 받아 들일 수가 없습니다. 鎮壓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대상이 있을 때 鎮壓을 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데모」를 누가 한다든지 시위를 한다든지 했을 때 그것을 막기 위한 것이 鎮壓이지 18日 그렇게 정말 미친 개처럼 날뛰면서 무자비하게 잔인하게 곤봉을 휘두르는... 젊은이들로 보이는 사람들에게 무조건 저항을 하지도 않고 반항을 하지도 않고 示威한다고 손 한번 들지도 않고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市民들을 그렇게 두들겨 패고 찌르고 하기 때문에 분개해서 光州市民들이 일어난 抗爭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흔히 光州는 過剩鎮壓에 의한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쉽게 써 버립니다마는 저는 절대 그것을 받아 들일 수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18問題가 해결되기를 바라는 것은 첫째 전제되는 것이 바로 아까 말씀 드렸던 真相 糾明에 의한 責任者 依法 조치가 반드시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폭도라고 하는 누명이 벗겨져서 그 명에가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그 연후에 이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겠지요. 墓域을 聖域化 한다든지 아니면 紀念館을 세운다든지 英靈塔을 세운다든지 이런 것 들이 부수적으로 따라 오리라 보고 싶습니다. 또한 반드시 國家有功者로서의 報勳對象者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盧泰愚政權 그리고 民正黨에서 發表한 特別法案이 있지요. 이것은 補償額이라고 그렇게 일컬으면서 어떻게 어떻게 한다고 그러합니다. 이것 정말 웃기는 일입니다.

朴浚圭씨가 이야기 했듯이 補償이 아닙니다. 賠償이어야 합니다. 그랬을 때 이런 모든 것들도 그 前提條件이 해결이 되었을 때만이 그 연후에 賠償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거론되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고 또한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光州 그리고 全南市民, 道民들을 제외한 全國民들에게 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易地思之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光州市民들 너무 욕하지 말아 주십시오. 정말 애원합니다. 光州市民들 그렇게 과격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누군가 한번 이러한 고통을 이러한 슬픔을 안고 또는 받아 보신다면 光州市民들의 그 간절한 아픔을 이해하리라 믿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光州問題는 光州市民의 問題만이 아닙니다. 진정 이 나라가 안고 가야 할 民主化의 그 길목에 뿌려져야 할 우리들이 안고 가야 할 光州問題입니다. 이 問題가 풀어지지 않고서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이 나라의 民主主義는 말할 필요도 없고 民族의 統一도 이룩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랬을 때 全國民들 이제는 光州 聽聞會를 통해서 조금은 알았으리라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가졌던 편협한 그러한 생각들을 버리고 光州市民들도 똑같은 여러분들과 같은 大韓民國 國民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시고 여러분들이 정말 그러한 고통을 당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되돌아 보시고 이제는 光州市民도 여러분과 똑같은 인간이자 똑같은 國民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全國民에게 호소를 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래전부터 民正黨에서는 兩是論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兩是論이라고 하는 것은 問題解決에 도움은 안 됩니다. 적당히 덮어가고 지나 갈 수는 있을런지 모릅니다. 그러나 問題의 根本的인 해결은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이것은 마치 兩是論은 아까도 비유를 했읍니다마는 서로 싸워 가지고 너도 잘했다 나도 잘 했다 들이 다 잘한 점 있고 잘못된 점이 있다 잘잘못이 똑같지 않느냐 그러니 이제 서로 화해하고 용서하자 이러한 생각입니다. 兩是論이 바로 民正黨에서 부르짖는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잘한 것은 잘한

것이고 잘못된 부분은 잘못된 부분으로 남아야 하리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을 때 光州問題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저는 다시 한번 民正黨委員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토록 光州問題를 해결한답시고 聽聞會를 구성을 했지만 왜 그들은 될 수 있는 한 光州問題를 은폐하려고 하고 있고 또 聽聞會에 참석하지 않고 있는지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國民의 代辯者로서 자리명패만 가지고 있으면서 이러한 行事를 치루어야 하는. 이 자리에 意圖의으로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은 國民의 배신자요 國民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지탄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정말 우리 野黨委員 여러분들 그리고 거기에는 無所屬委員님도 포함이 됩니다마는 정말 이 聽聞會를 통해서 수고 많이 하시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그토록 限界點이 있는 줄은 번연히 압니다마는 또 저희들은 더 이상의 무리한 요구도 해왔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도 人間이기 때문에 그 限界點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아까도 어떤 분이 말씀을 드렸었습니다마는 이 聽聞會가 지속되기를 저희들은, 계속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형편으로 지속돼 봐야 별 문제가 여기에서 나타나리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다라고 한다면 소위 特檢制라든지 이런 방법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런 방법을 통해서 설령 民主化過程이 조금 지연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光州虐殺真相糾明은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 時代를 사는 그런 과제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委員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그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文東煥 田桂良證人 그리고 辛基夏委員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밤이 늦었습니다마는 金仁坤委員이 오늘 저녁에 나오신 證言者들의 證言을 들으면서 하실 말씀 議事進行發言이 있다고 해서 너무 시간이 걸지 않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金仁坤委員 며칠동안 聽聞會를 통해서 들어 볼 때 과거에도 느끼기는 정말로 家庭을 가

지고 자녀를 기르는 저희들로서는 가슴이 찢어질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아야 할 全斗煥一黨이 태어나서 祖國을 쑥대밭을 만들고 지금 앉아서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썩썩하게 잘 생긴 사람들이 불구자가 되었습니다. 또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도 죽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정말로 民族과 더불어 분개를 느끼고 슬픔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동시에 國會議員의 한 사람으로서 지극히 후회되는 생각이 하나 드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昨年에 總選舉가 끝나고 난 다음에 즉시 우리의 決議로서 우선 부상해 가지고 고생하면서도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람들부터 긴급한 조치를 취해서 서울大學을 비롯해서 國內의 우수한 醫療陣을 갖춘 大學病院에서 치료를 받도록 하는 조치가 있었어야 되었을 터인데 그것을 우리가 마치 생각하지도 못하고 이루지도 못했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光州特委에서 特別法制定 및 事後對策小委員會가 구성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제대로 稼動이 되어가지고 귀결이 맺어 질려고 한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줄로 압니다. 계속해서 政府與黨에서는 방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고자하는 곳에 단시일 내에 갈 수가 없다는 것을 本委員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全體特委의 決議로서 政府當局에 촉구를 해 가지고 5·18民主抗爭에서 부상당한 民主闘士들을 하루 빨리 아까 이야기했던 國內 優秀醫療陣에서 우선 치료를 할 수 있도록 그러한 조치를 우리가 政府當局에 決議로서 촉구할 것을 提議를 합니다.

이것은 날이 늦으면 늦을수록 살려야 할 사람을 못살리고 병신이 될 사람 더 병신이 되고 그야말로 돈으로도 막아낼 수 없는 그런 결과가 올줄로 믿기 때문에 지금 議事進行發言을 통해서 제의를 하는 것입니다.

○委員長 文東煥 우리 이 委員會의 決議가 지고서는 效果있는 촉구가 되지않고 이러한 國會의 촉구라는 것은 本會議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술적인 문제를 우리 幹事會議에서 研究해서 가장 効果적인 방법으로 하도록 연구해

주시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金仁坤委員 合法的인 방법으로 연구해서 그것이 조속히 이룩될 수 있도록 委員長께서는 배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委員長 文東煥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證人들이 나가기 전에 그동안 수고해 주신 여러분과 특히 여기에 나와서 證言해 주신 證言者들 전체에 대해서 委員長으로서 한 두마디 하고 끝나치고 싶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計劃한 證言은 오늘 저녁으로서 마칩니다.

이 자리에 앉아서 얘기를 꼭 들으면서 저도 여러 가지 깊은 느낌과 깨달음을 가집니다.

희생자들이 입을 벌려서 외쳐서 정의의를 구해서 韓國의 역사가 바야흐로 새로운 차원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까 有功者라는 말을 썼읍니다마는 韓國의 民主主義가 이만큼 진전된 데에 있어서 有功者가 누구냐고 하면 우리가 많이 꼽을 수 있습니다마는 光州에서 쓰러졌고 負傷을 당했고 10餘年동안 가슴을 치면서 살아온 이 분들이 그 중요한 有功者의 대열에 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느낀 것은 참된 화해라는 것은 억울한 者의 恨을 풀어주고 죄과가 있는 사람은 自白을 하고 새로운 자세로 서고 그때 참 화해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民族의 앞날이 밝아진다고 하는 것을 새삼 느낍니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미봉책으로 밀고나갈 때 오히려 그 후환이 더 커진다. 恨이 더 깊어진다. 歷史의 미래는 더 어두워진다 하는 것을 새삼 느낍니다.

그러면서 저는 특히 靑瓦臺에 계시는 盧泰愚 大統領이 최근에 真相糾明을 이 이상 요청하고 5共處理를 여기에서 중단하지 않는다는 것은 報復行爲를 하려는 것이라고 하는 이 말을 생각해 봅니다.

오늘 저녁에 盧泰愚 大統領이 우리 네분 證人들이 하신 얘기들을 귀담아 들어 주시고 곰곰히 생각해 주시고 생각을 다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真相糾明을 요청하는 것은 報復을 요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대한 정의를 이룩해 달라 하는 것은 결코 報復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저녁에 곰곰히 생각하시고 다시 생각하셔서 새로운 자세를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盧泰愚 大統領 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나오지 않은 民正黨委員 그리고 加害者에 속하는 사람 百潭寺에 가서 百日 기도를 하시는 분들 등등 마음에 깊이 생각하시고 그렇게 함으로 이 나라의 앞날이 좀 더 밝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날이 와주시기를 바라는 심정이 간절합니다.

이제 좀 具體的인 議事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사실은 이태원 조갑제 鄭鎬溶 崔雄 鄭雄 안부웅 尹興禎 證人에 대한 對質 審問을 진행할 순서입니다마는 開會時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태원 조갑제 鄭鎬溶 崔雄 안부웅 證人이 불참을 通知해와서 參席하시겠다는 鄭雄 尹興禎 두 證인도 참석하기를 원합니다마는 실제 對質 審問은 실효를 전혀 거둘 수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일곱 證人에 대한 對質 審問은 실제 불가능합니다. 두 분의 出席意思에 대해서는 謝意를 표합니다마는 다음 기회에 證言을 해주실 수 있도록 부탁 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對質 審問에 대해서는 앞으로 幹事會議의 협의를 거쳐서 委員會에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司會를 보던 辛基夏 幹事께서 이미 간략하게 報告했다고 합니다마는 아침 報告事項으로 말씀드린 張世東 張師福 兩證人에 대한 同行 命令狀을 當委員會 職員이 國會 警衛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同行 命令을 집행하고자 했지만 그 同行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의 復命이 있습니다. 이 두 件의 執行結果에 대한 復命內容은 委員님께 配付해 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불참한 證人에 대한 對策에 대해서는 幹事會議에서 협의하여 앞으로 委員會에서 그 방안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張石和委員 告發해주세요. 告發……

○委員長 文東煥 예. 그것은 의논해서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金光一委員님께서 議事進行을 요청해왔습니다. 말씀해주시시오.

證人들은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金光一委員 지루하고 오랜 시간동안에 進行 되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대단히 민망합니다. 그러나 오늘 委員長을 비롯한 열다섯분의 모든 委員가운데 제가 訊問하기로 했던 證人의 不出席으로 인해서 한마디 이야기할 기회가 없었다는 점을 양해하시고 저의 마지막 議事進行發言을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까지 날수로 통상 열여드레동안에 걸친 TV生中繼에 의한 公開聽聞會를 마쳤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그동안 무엇을 얻었나 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의문이 자동적으로 따르게 됩니다.

저는 앞으로의 議事進行을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國會調查特別委員會를 만들어서 真相을 糾明하는 것은 刑事訴訟의인 접근방법이나 民事訴訟의인 被害算出方法이 아니라 바로 政治的 접근방법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刑事事件과 같은 犯罪에 대한 엄격한 證明을 요하지 않습니다. 또 民事訴訟에서와 같이 被害立證을 算術的으로 金額 하나하나까지를 立證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우리는 대체의 줄거리 이 事件發生의 原因과 經過와 結果가 어떻게 되었느냐 하는 것을 이 聽聞會를 통해서 알수 있으면 그 목적을 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알게된 사실을 가지고 加害者와 被害者의 문제를 처리함으로써 그 事件이 일으킨 산물을 처리해야 하는 것이고 나아가서 歷史的 過誤에서 敎訓을 얻어서 다시 그와같은 過誤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再發을 防止하고 세번째로는 더 나은 制度를 만들어서 나라를 발전시키는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와같은 일을 함에 있어서는 참으로 꾸준한 인내와 현명한 洞察力 그리고 歷史法則을 깨닫는 지혜 그리고 國民全體로 하여금 즐겨 따라오도록 하는 和合을 하는 政治指導力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의 成果는 무엇이었느냐? 저는 비록 核心的인 證人들이 나오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제 事件의 原因이나 經過나 結果는 대체적으로 밝혀졌다고 봅니다. 이제 일제사격을 피하면 이제는 우리는 다시 이 正義의

총탄을 맞을 기회가 없을 것이다 하고 었드려있는 證人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지금 光州地域一圓에 자기들이 밝혀지 못하는 恨스러운 가슴을 안고 억울한 마음을 아직도 토로하지 못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만하면 밝혀질대로 밝혀졌다. 그래서 어떤 조치를 취할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인내를 가지고 그리고 이번에 잘못 처리하면 또 다시 第2 第3의 光州事件을 일으켜서 또 다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진다는 점에서 앞으로 처리에 있어서 참고해야 될 事項을 저 나름대로 말씀드립니다.

첫째 남은 것은 證人調查입니다. 이 證人調查는 어떤 방법으로도 마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에 代表的인 證人은 崔圭夏前大統領 全斗煥前大統領입니다.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가 하도 많이 論及했기 때문에 論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 끝내 이 國會 聽聞會의 證人 자리에 나오지 아니할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앞으로 이 本 調查委員會에 끝내 나오지 않는다면 그 歷史的 필요성때문에 우리 國會가 마지막으로 出張訊問하여 여기서 하는 것 똑같은 절차에 의해서 證人 訊問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 國會調查委員會의 證人現場出張訊問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그 방해하는 者 全員은 國會冒瀆罪로 告發되고 처벌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最終的으로 大統領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면 大統領을 비롯한 모든 關係公務員과 그세력들이 이 방해에 대한 應분의 法的責任을 져야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만약 그렇게 해서라도 이 證言聽取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저는 이 점에 대해서는 그들이 끝내 國會에 출석하지 아니함으로써 이國會에서 論議되고 있는 모든 그들에 대한 혐의사실을 '스스로 인정하는 결과가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崔圭夏大統領이 끝내 大統領의 자리에서 이 軍人들의 反亂行爲를 막지 못하고 마지막에 드디어 그들에게 항복함으로써 이 國家의 운명을 이와같이 果卵의 위기에 빠뜨린 책임을 져야할 것이고 全斗煥大統領이 加害者의 모든 最高責任者로서 져야 될 것이고 끝내 全斗煥

大統領을 나오지 못하게 하는 現職大統領의
관련사실이 밝혀져야 하는데 그것까지도 인정
하고 있는 것이라는 결과를 가져 온다는 점
을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와같
은 문제에 있어서 오늘 우리 聽聞會를 이번
사흘동안 하는 과정에서 全斗煥이라는 세글자
이름보다는 盧泰愚라는 세글자 이름이 더 많
이 論議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끝내 盧大統領이 이끄는 이 政府가
직접 간접 유형 무형의 영향력을 행사해서
나와야 될 證人의 出席을 나오지 못하게 하
고 이와같이 이 國會의 聽聞會가 반쪽 聽聞
會가 되고 또 國會의 調查活動을 효율적으
로 하지 못하도록 한다면 그 모든 원성과 이로
인해서 不利益을 받는 모든 사람들의 恨이
어더로 향할 것이냐? 이제는 힘을 잃고 유
폐되다시피되어 있는 全斗煥大統領보다도 힘을
가지고 있고 현재 모든 것을 다스리고 있는
盧大統領에게 모든 화살을 집중적으로 모아져
서 그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國
民的인 저항을 초래한다는 점을 우리는 경고
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國民들은 결국 이 國會라는 우리가 만든
制度政治를 불신하게 되고 한계를 느끼게 되
면 결국 거리에서 싸우게 될 것이고 마침내
政權을 바꾸지 아니하고는 아무런 해결도
할 수 없다는 그러한 결론에 도달하게 될
때 우리가 받는 궁극적인 목적달성은 되겠지
만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被害를 입어야 하
는가 하는데 대해서 우리는 심각하게 고려해
야 할 것입니다.

이 점에 관해서는 盧大統領뿐만 아니라 이
現在의 國會를 運營하고 있거나 政治를 指導
하고 있는 野黨 指導者들 여러분들도 심각하
게 고려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國會의 權能을 무시하고 法
에 의한 出席要求를 끝내 거부하고 證言을
거부하고 僞證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대하
서는 하나도 남김없이 철저히 告發되고 응
징되는 절차를 우리 國會가 빠뜨리지 않아야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現場調查나 또는 非公開 聽聞會나
또는 韓·美關係에 대한 證言이나 또 앞으로

調查結果報告書를 만드는 모든 일은 우리가
小委員會를 만드는 것을 통해서 철저히 추
구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國民 모두를
납득시키고 피해자를 치유하고 加害者를 依法
처리하는 모든 立法作業과 行政作業이 이루어
져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우려하고
걱정하는 것은 第2 第3의 光州事件을 일으키
지 말자는 것입니다. 일단 1次的으로 일어났
던 光州事件을 제대로 처리하지 아니함으로써
그들에게 다시한번 새로운 분노를 일으키고
우리 國民 모두에게 이 아픔과 분노를 확산
시킨다면 이것은 第2의 光州事件을 일으키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끝내 참지 못
해서 폭발하는 경우 그것은 第3의 光州事態
라고 생각합니다.

이와같은 일을 막기 위해서 우리 政治 指
導者들이 指導力을 發揮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 國會 調查委員會는 철저히 技術的으로
幹事들이 專門家를 동원해서 研究를 해 가지
고 그래서 全體會議에 붙이고 國會 本會議
에 우리 調查委員會의 意見을 發表도 하도록
이렇게 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殺人罪의 公訴時效는 15年입니다. 이제 光
州事件은 9年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니다. 지금
적당하게 무마한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
니다. 殺人 責任者는 15年 이내에는 行爲法
에 의해서 당연히 斷罪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지체롭게 해결하지 아니
한다면 그와 같은 事態가 안온다고 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의 進行
에 參考해 주시기를 바라는 뜻에서 말씀드렸
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文東煥 좋은 적절한 發言을 해 주
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聽聞會를 마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20時20分 散會)

○出席委員

- | | | |
|-----|-----|-----|
| 文東煥 | 金泳鎭 | 辛基夏 |
| 李海瓚 | 趙贊衡 | 趙洪奎 |
| 崔鳳九 | 金光一 | 朴泰權 |
| 吳景義 | 李仁濟 | 張石和 |

金 文 元 金 仁 坤 尹 在 基
 朴 燦 鍾

○委員아닌出席議員

金 德 圭 金 忠 兆 朴 錫 武
 朴 鍾 泰 徐 敬 元 柳 峻 相
 李 喆 鎔 林 春 元 鄭 祥 容
 鄭 雄 趙 尹 衡 崔 洛 道
 姜 信 玉 金 東 英 崔 炯 佑

○出席專門委員및立法審議官

專 門 委 員 陳 在 勳
 立 法 審 議 官 金 永 善

○出席證人

○홍보활동관련증인(합석증인)

- 1) 김태종 : 홍보활동담당
- 2) 전용호 : "
- 3) 정현애 : "
- 4) 전춘심 : "

○기타지역상황 관련증인(합석증인)

- 1) 문장우 : 지원동 상황
- 2) 이성전 : 화순지역
- 3) 양지문 : 목포지역
- 4) 김오진 : 나주지역
- 5) 김덕수 : 해남지역

○사후처리 관련증인(합석증인)

- 1) 전계량 : 5월 유가족회 회장
- 2) 이지현 : 5·18부상자동지회 회장
- 3) 허 청 : 행불자협회 회장
- 4) 김태현 : 5·18부상자동지회 부회장